

2020
03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2 ISSU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4 INTERVIEW

코로나19와 싸우는 임상병리사

05 NEW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08 NEWS

임상병리사 비롯한 보건의료인
490명, 대구 도우러 나섰다

10 COMMUNICATION

가나자와 임상미생물학회 참가기

제446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실화학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우주, 하성일
기자 최현빈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임상병리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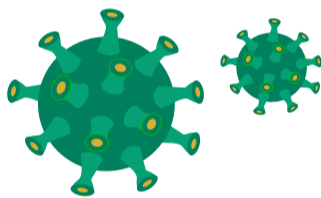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사태인 코로나19 진단의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협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비상대책위를 발족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 섭외, 유튜브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정보 제공,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 회원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확진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불의의 감염에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특별히 대구시 및 경북도회 회원님들께 다 함께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항상 임상병리사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장인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월 6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대한임상병리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협회는 감염 유무를 검사하는 지침·예방 등을 조기 진단하는데 감염관리위원회, 임상유전검사학회, 임상미생물검사학회 등과 전국 임상병리사 회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6시간 만에 진단하는 신속검사 진단시약(RT-PCR)에 대해 정부에서 신속 승인함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검사센터 및 민간기관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진단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가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들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교육,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신빙도 조사(검사에 대한 사전 시험평가)를 완료함으로써 검사에 필요한 실무대응 준비를 마쳤다.

장인호 협회장은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을 이겨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검사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불의의 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임상병리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금대상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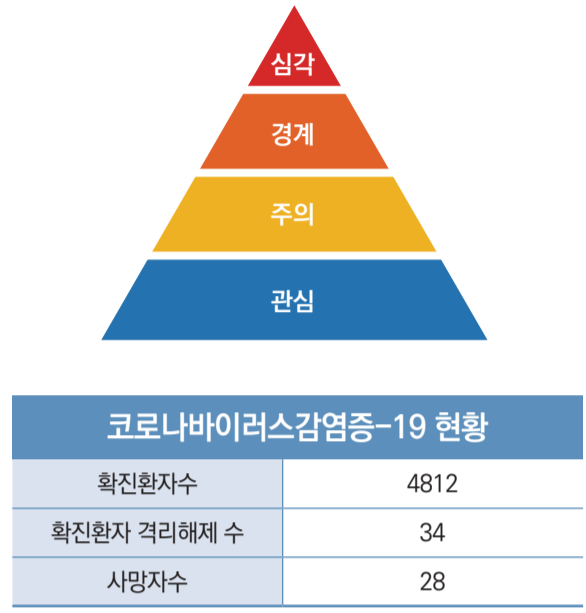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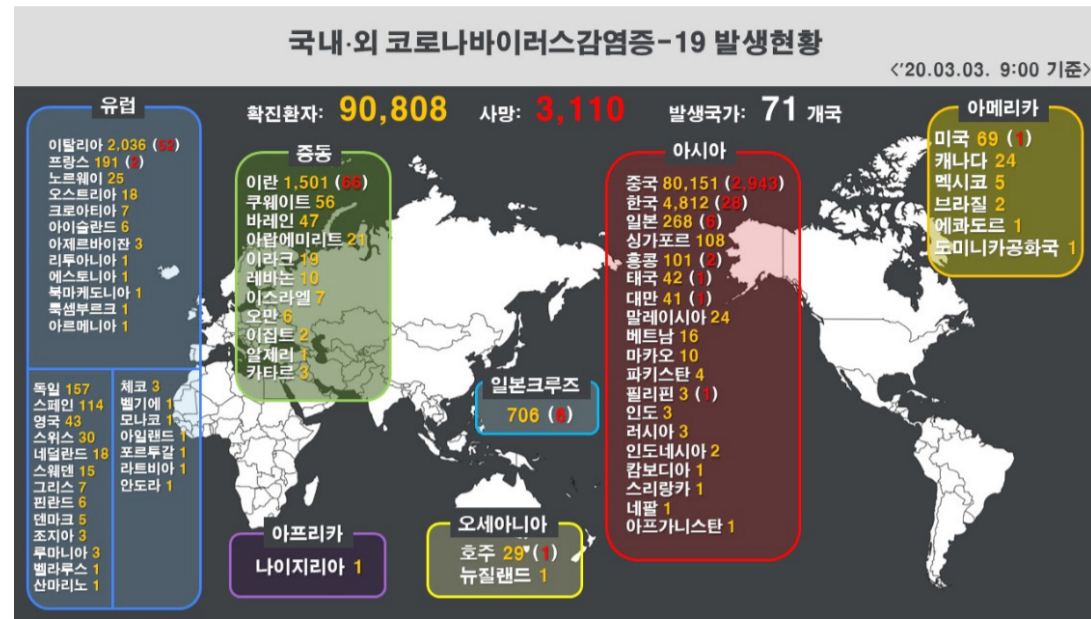
모금기간 3월 6일(금) ~ 3월 21일(토)

모금계좌 (국민은행) 048401-04171466

*예금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입금자명에 반드시 (이름, 면허번호) 입력 후 송금

※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현황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계	검사중	결과음성
3.2.(월) 0시 기준	109591	4212	31	4159	22	105379	33799	71580
3.3.(화) 0시 기준	125851	4,812	34	4750	28	121039	35555	85484
증감	+16260	+600	+3	+591	+6	+15660	+1756	+13904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중간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27일, 6명의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와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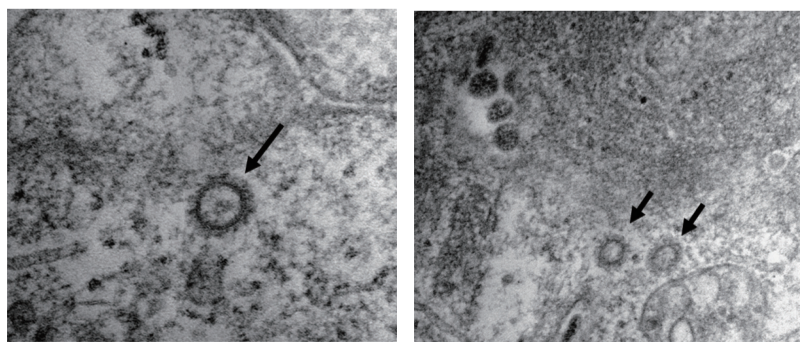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결합부위, 바이러스 증식과 병원성 등을 담당 하는 유전자 부위에서 아직까지 변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국외 코로나19 환자 유래 바이러스(공개된 총 103건과 비교분석)의 염기서열과 비교했을 때 일치율은 99.89~100%를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것은 돌연변이로 인한 독성변화나, 유전자 검사 등의 오류 우려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하면서, 현재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가 곧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AMT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코로나19 검사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시행합니다

전남대병원,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전담팀 운영

전남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더 빠르고 정확한 감염여부 판단을 위해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검사대상 범위 확대 로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는 검사외래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임상병리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전담팀을 지난 2월 23일부터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의 검사도 병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PCR 검사가 오로지 코로나19 검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PCR 검사 가능한 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진단검사팀이 총동원해 하루 2~3회씩 시행해 오던 검사를 이제는 1일 평균 4회로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체로 하루 평균 1~2회 정도인 국내 대형병원의 검사량에 비하면 전남대 병원은 거의 2배에 달한다.

한편 PCR 검사는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 배양한 뒤 코로나19 유전자에만 반응하는 진단시약을 묻혀 증폭장비에 넣고 바이러스 유무를 밝혀내는 방식이다.

특히 검체채취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이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 하루가 고박 소요됐던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에 비하면 획기적인 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방법... Real-Time PCR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질병관리본부 인증을 받은 병원과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한 검사를 시행한다. 우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는 호흡기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구인두'(입)와 '비인두'(코) 등에서 멸균한 플라스틱 면봉을 사용해 검체를 채취한다.

또한 객담, 기관지척액 등 하기도 검체를 반복 채취해 측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채취한 검체는 3중 포장돼 즉시 검사실로 이송된다. 보호복을 착용하고 음압 장비가 갖춰진 진단 검사실에서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시작한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CR, Real-Time PCR)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PCR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자로서 DNA 중합효소를 이용해 DNA의 양을 증폭시키는 기술이다. E 유전자 PCR은 선별 검사(screening test)로 시행하고 orf1b 유전자의 RdRp 부위 PCR은 확인검사(confirmatory test)로 사용한다.

이 검사지침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Real-Time PCR' 검사 소요시간은 빠르면 2~3시간이 걸리고 검체운반 이동,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포함하면 진단 결과까지는 6시

간 정도 소요된다. 검사 결과는 바이러스 역가가 낮은 판정기준 cutoff 근처 결과는 '위음성'(양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음성으로 나온 경우)이거나 '위양성'(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양성으로 나온 경우를 말한다)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필요한 경우 진여 검체나 새로 채취한 검체로 검사를 시행한다.

최종판정은 선별검사 양성, 확인검사 양성이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다. 접 촉력이 분명한 의사항자의 상기도 검체 1회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을 배제하기 어렵다. 1회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한 시간 후에 상기도 검체를 반복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하기도 검체를 채취해 재검사를 할 수도 있다.

검사비용은 확진 판정된 환자는 정부가 부담하고, 별도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 19 정부예방행동수칙에 따라 발열·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힘내라 대구 코로나19와 싸우는 임상병리사



이정현(대구 남구 의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파견

Q. 대구지역 의료인력 지원하신 용기에 매우 감사드리며,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다면?

A. 평소 지역사회의 감염과 복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구 시민이자 임상병리사로서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 중에 뉴스에서 임상병리사를 구한다는 것을 보고 보건복지부로 지원을 했고 대구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동산병원으로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Q. 두렵지는 않으셨는지요?

A. 신중 플루때도 근무해 본 경험이 있고 해서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Q. 각오를 어떻게 하셨는지?

A. 각오라고 할 것도 없이 임상병리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지원했고, 신청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 급하게 투입되어 업무 중입니다.

Q. 가족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셨는지요?

A. 가족들은 걱정보다 응원을 더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업무 마치고 가정으로 복귀하겠습니다.

Q. 숙소, 근무 시간 등 지내시는 현장 상황 및 불편한 점이나 좋은 점 등은?

A. 대구동산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이미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고 기존 직원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선별진료소, 확진검사실 등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동료, 선후배 임상병리사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A.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먹기 쉽지 않은 감염병이라는 위기의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업무를 진행 중인 모든 임상병리사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

A. "힘내요 대구!"란 말이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항림(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대구보훈병원), 대구지역 총괄

Q. 코로나19 대구지역 거점병원 책임자로서 어떤 각오인가요?

A.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전담 병원(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지정에 따라 전담병원에 근무하시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노고가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의 신속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대구보훈병원 진단검사의학과 21명 임상병리사들은 이런 자긍심을 갖고 현 코로나 확진환자의 검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요 코로나 확산방지 및 환자 쾌유를 위해 현장에서 검사에 매진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임상병리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합니다.

Q. 현장에서 감염병을 마주하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A.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기관은 코로나19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연일 초긴장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100여명에 달해 달서구보건소의 검사인력 부족으로 음압 격리실에서 자체 검체 채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료진의 부재로 진단검사의학과와 리더인 제가 직접 술선수법해서 직원 검체 수행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련 많은 연습과 교육을 받았더라도 실전에 투입된다 하니 두려움이 없진 않았으나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대구보훈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Q.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후의 상황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월 18일 대구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저희 병원에도 19일에 확진자가 응급실을 경유하는 등 초유의 응급실 폐쇄 및 병원 잠정적 휴진이 이루어진 가운데 24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후 우리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잘 수행한 대구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자문을 구해 신속하게 확진환자를 위한 검사실 재정비에 들어갔습

다. 검체지침과 검사지침을 만들고 바이러스용 BSC를 구매하고 소독시설을 갖추는 등 시설정비를 하였으며, 21명의 직원들이 이틀 만에 코로나 환자를 위한 검사실을 준비하였습니다. 21명의 직원을 검체 수송, 검체 이동, 검사전담, 검사 후 처리 등 몇 개조로 나누어 안전한 검사실과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레벨D 보호구 착용법 실습, 검체 수송 및 검사 시 상황을 실시간 의견을 나누며 실전에 투입 하였습니다. 2월 26일부터 90여명의 환자가 본격적으로 입원하면서 이 활약에 대해 저희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들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대구시 회장으로써 지역사회 시민 및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위한 주의사항, 격려의 말씀 등 부탁드립니다.

A. 검체 채취 및 확진검사 등 진단검사분야에서 불철주야 검사를 시행하는 우리 임상병리사 회원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대구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개인건강 및 위생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협회도 함께합니다

Q. 기타 전하고 싶은 말씀

A. 지금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및 각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임상병리사 회원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검사 속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라고 밝혔듯이 우리나라 진단검사역량이 인정받음에 이 모두가 자랑스런 임상병리사 회원님들의 노력과 열정 속에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회의의 장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지역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힘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중앙회소식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 최소화해 진행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 예정됐던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최소화해 진행했다.

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대의원총회를 최소화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임상병리사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22일, 2층 서울사회 강의실에서 지형선 총회위원장, 홍창식 총회부위원장, 중앙회 회장단이 참석해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만 진행했다. 기존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의 나머지 안건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심의할 계획이다.

회관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대한임상병리사회관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설치된다. 협회는 화질이 뛰어나 몰입감이 좋은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통해 근처의 시민들에게 보건으로 분야 정보 및 임상병리사 홍보물을 상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옥외광고물이 임상병리사와 협회를 홍보하는 창이 될 것으로 보고, 주변 도로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협회는 개인위생 및 행동수칙, 인근 진료소 현황, 확진자 수 등을 알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에 마스크 전달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심각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에 KF94 마스크 1만여 장을 긴급 전달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대구지역에 많이 발생하여 지역사회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염 우려와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대구시민과 회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긴급하게 확보한 마스크 1만여장을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협회에 전달했으며, 이는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건한 공보부회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회원 및 시민들의 고충이 크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과 회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할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0.02.01 ~ 02.29

▶ 2월 1~2일: 대전대학교에서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정책과제 연구포럼을 이틀간 진행하였다. 임상병리교육평가원 비전, 운영, 교수진, 교육과정, 시설, 조직구성 및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2월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공보부 회의를 진행했다. 협회관에 설치한 옥외전광판에 대한 운영방안이 논의되었다.

▶ 2월 10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수교육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 2020년 제1차 온라인 보수교육 강사 설명회, ▲2020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수교육 업무지침 배포가 보고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보수교육 일정 전면연기, ▲분과학회 학술대회 진행 시 필수교육 강사 지원 여부, ▲보건복지부 지정 필수과목에 대한 부분이 검토, 논의되었다.

▶ 2월 11일: 2020년 제1차 검진기관 및 중소병원발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지난 회의에 대한 회의록 검토 및 위원회 2020년도 운영 업무분장이 논의되었다.

▶ 2월 19일: 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재무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 2월 2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제3차 보건의료노조협의회가 진행되었다.

▶ 2월 25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2020년도 2차 SCOPUS 추진사업회의가 진행되었다. 대한임상검사와학회지의 국제 OA저널 데이터베이스(DOAJ) 등재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0.02.01 ~ 02.29

▶ 2월 6일: 제448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함. ▲2019년도 행정지도감사 결과, ▲협회장 신년사 보도자료 배포, ▲사무국 다이렉트 메시지 매뉴얼 고우, ▲2020년 해외학회 참가 최종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2019년도 결산 보고, 2020년도 예산 보고, ▲정관 및 제규정집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해 논의. 이후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함.

▶ 2월 6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하나투어와 MOU 체결식을 진행함.

▶ 2월 8일: 제164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함. 집행부 각 부서의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차기 및 차차기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상근제 도입, ▲정관 및 제규정집 제정 및 개정, ▲국가건강검진에서 임상병리사 필수인력 법제화, ▲2019년도 협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논의함.

▶ 2월 11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부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공단 검진기관 임상병리사 전문교육,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현장 평가 시 협회 전문 인력과의 현장 방문 등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논의되었다.

▶ 2월 20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의장단 회의에 참석함.

▶ 2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축소해서 열린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에 · 결산 심의안에 대해 논의함.

경남도회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안찬)는 지난 1월 18일 마산아리랑호텔에서 2020년 제5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경남도회는 이날 1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경남도회 발전에 대한 우수회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경상남도협회장상 김기영(창원파티마병원), 우수분회장상 진진숙(갑골장유병원), 우수간부 김선정(창녕한성병원), 우수회원 김경희(서울의과대학연구소)이 수상하였다.

특히, 이날 시상에는 경남도지사상 김정희(아라요양병원), 윤여춘(창원중앙병원) 회원이 그동안 협회 발전과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어 2부에서는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가 있었고,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되어 의결되었고 기타 안전도의에서 중소병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요구안도 있었다. 안 찬 회장은 "2019년에는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를 협회장배 시도회 친선축구대회로 성장시킨 한 해였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도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회원의 권익과 발전에 힘쓰며 경남도회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임상미생물검사학회

제31회 일본임상미생물학회 참가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회장 김충환)는 김충환 학회장과 손재철 국제위원장, 정나연 국제위원을 대표단으로 선임하고 발표자와 전문임상병리사 시험 우수협력자를 포함한 13명의 참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가나자와 닛코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일본임상미생물학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학회에서는 한일공동심포지움 참가관 6편의 포스터를 발표하는 등 학술교류 활동을 벌였으며 Ishikawa Prefectural Central 병원을 방문해 검사실에 내원한 환자의 편리한 이동과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학습하였다. 또한 정례학술교류회의를 통해 원내 감염관리 검사방법과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 유행병 발생시 방역 체계에 대하여 양국의 실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심포지움을 11월에 열리는 임상미생물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코로나19, 진단시약 사용 승인

코로나19에 대해 진단시약을 통해 신속히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2월 7일부터 일선 현장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 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 진단시약을 통해 신속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PowerChek™ 2019-nCoV Real-time PCR Kit)에 대해 임시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신청자료와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코젠바이오텍 제품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해 진단시약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 코젠바이오텍 진단 시약은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44개 민간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돼 2월 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진단에 코젠바이오텍 진단시약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코젠바이오텍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긴급히 코젠바이오텍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

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간의료기관까지 신종 코로나 진단시약을 확대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자가 격리 등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체외진단업체 씨젠 역시 코로나19 진단시약 '올플렉스 2019-nCoV Assay'를 국내에 출시,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여 하루 1만여건 이상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차 교육과 QC를 통과한 33개 기관을 포함해 전국의 총 79개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월 28일에는 솔젠트와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코로나19 유전자검사시약에 대해 긴급사용이 승인되었으며, 3차 교육과 QC를 통과한 22개 기관이 추가 지정되어 총 91개 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SCL, 검체 뒤바뀜 등 중대 오류 사전 차단... '바코드 추적시스템' 도입

정확한 암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병리검사가 필수다. 이는 질병이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 슬라이드로 만든 후 광학 현미경으로 판독,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조직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은 고도의 섬세함이 필요해 자동화 도입이 어렵고 일일이 검사자의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환자의 조직 샘플이 뒤바뀌지 않도록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슬라이드 제작과정에서 만에 하나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바코드 추적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바코드 추적시스템은 조직병리검사를 위해 제작되는 모든 슬라이드에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CL 권규영 병리과 원장은 "바코드 추적시스템은 검체 뒤바뀜 같은 중대 오류도 방지하면서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소한 문제들도 통계화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검사의 전 과정에서 검체를 추적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오류 파악과 동시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검사의 질 관리 및 환자 안전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젠의료재단, 2020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2년 연속 수상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월 24일 「2020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2020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은 가치경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 아래 진행된다.

재단의 주요 공적으로는 분자진단과 같은 첨단기술·시스템 도입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내 최초 하루 만에 검체의 접수에서부터 검사 결과까지 보고하는 ONE DAY 검사시스템을 구축 및 시행한 것이다.

또한 재단은 2014년에 개원한 부산경남검사센터에 이어 올해 서울 본원 검사센터 수준의 대구경북검사센터를 개원해 지역 밀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검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 해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첫 번째 해외 질병검사센터인 SKL 검사센터(Seegene Korean Clinical Laboratories)를 개원, 수준 높은 질병검사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재단은 국내외 의료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2019년 베트남과 인도, 몽골, 케냐 등 9개 국가에서 총 17회의 보건 의료 봉사활동 수행하였으며, 선한봉사센터, 굿피플의사회 등과 협력해 40여 회의 국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천중기 이사장은 "재단의 일련의 활동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가치경영으로 평가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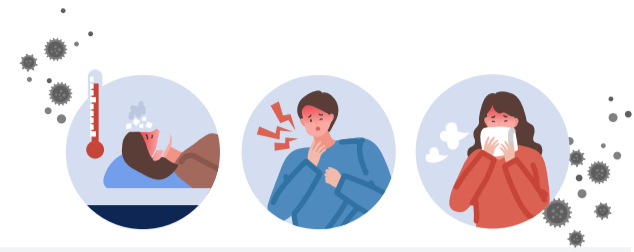
CHEMISTRY DxC 8801,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임상병리사 110인

대구 도우러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로 가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한 의료인이 85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진의 관심과 참여에 사의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약속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4일부터 대구 지역에서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 결과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85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직무별 지원자는 임상병리사 110명과 함께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행정직 등 227명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대구·경북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해 전신 보호구 약 4만7천개, 방역용 마스크 7만7천개, 전동식 호흡보호구 105개를 의료진에 제공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파견인력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숙박비, 식비, 여비도 정액 지급하는 한편 의료진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목록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주간 파견 근무 후에는 인력을 교체하고, 헌업 복귀 후에는 2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외과 군인들에게는 위험에 대한 보상수단을 지급하고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달려오신 보건의료인들께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TC 유전자검사 항목 12개 → 56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2월 17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를 말한다.

2016년 관련 고시 제정 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기존 혈압·혈당 등 12항목(46 유전자)에 한정돼 허용됐다. 이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검사서비스 질 관리 등 안전한 서비스 확보 필요성 등 요구가 있어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과 지난해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검사허용 12항목의 경우 검사방식(모든 유전자검사기관 가능, 유전자 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의 부재 등 사유로 허용이 철회됐다.

'DTC 유전자검사 질 관리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 검사가능 항목의 경우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외인성호도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이다.

또 이날부터 심각한 유전질환에 대해 산전유전자검사의 허용을 기존 165종에서 189종으로 확대하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165종의 유전질환만 허용하고 있었지만 유전병을 가진 부모의 건강한 아기 출산 희망, 기존 검사허용 항목과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검사항목이 포함되지 않음에 대한 형평성 요구 등을 감안해 추가 항목을 지정했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부키증후군,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갑상선수질암 등 24종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허용됐다. 무홍체증,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등 6종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환된 가족의 증증도를 고려하거나 특정 증증 유전자 변이질환에 기인한 경우로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마련 등 제도 정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의 확대에 의해 동일한 위험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전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병리협보

임상병리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광고문의

전화번호 : 02-3291-5435

팩스번호 : 02-3291-5621

E-mail : kamtreporter@daum.net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0년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리스트

학문영(세부영)	강사명	강의명	강의시간
임상유전학 (분자유전)	양해경	핵산의 이해 및 추출 (혈액)	0.5시간
	김정분	핵산의 이해 및 추출(조직)	0.5시간
	김선경	염기서열염색법 (Sequencing analysis)	0.5시간
		DNA 절편염색법 (Fragment analysis)	0.5시간
	진현석	NGS의 이해1	0.5시간
		NGS의 이해2	0.5시간
	박원영	분자유전 분야	0.5시간
		분자유전 분야	0.5시간
	이명근	분자유전검사의 질관리 1	0.5시간
		분자유전검사의 질관리 2	0.5시간
임상유전학 (세포유전)	손정숙	세포유전검사의 개요	0.5시간
		염색체검사의 방법	0.5시간
	안정숙	염색체 핵형표기요령 1강	0.5시간
		염색체 핵형표기요령 2강	0.5시간
	시차자	형광동소교잡법(FISH) 검사의 개요	0.5시간
	형광동소교잡법(FISH) 검사의 방법	0.5시간	
임상생리학 (뇌혈류조용파)	이의정	뇌혈류 초음파 개요	0.5시간
		기본 TCD 검사방법	0.5시간
	강건우	TCD임상적 적용 1	0.5시간
		TCD임상적 적용 2	0.5시간
	정호태	TCD임상적 적용 3	0.5시간
	남윤택	TCD임상적 적용 4	0.5시간
	이은선	TCD임상적 적용 5	0.5시간
		TCD임상적 적용 6	0.5시간
	이현경	TCD임상적 적용 7	0.5시간
		TCD임상적 적용 8	0.5시간
임상생리학 (폐기능검사)	추현혜	폐기능검사를 위한 해부생리	0.5시간
		폐기능검사를 위한 기본개념(1)	0.5시간
		폐기능검사를 위한 기본개념(2)	0.5시간
	추현혜	폐기능검사의 준비(1)	0.5시간
		폐기능검사의 준비(2)	0.5시간
	추현혜	폐기능검사 방법(1)	0.5시간
		폐기능검사 방법(2)	0.5시간
	추현혜	폐활량 측정시 오류 및 해결방안(1)	0.5시간
		폐활량 측정시 오류 및 해결방안(2)	0.5시간
		폐활량측정 결과 및 해석	0.5시간
임상면역학	홍승복	면역학의 입문	0.5시간
		질병과 면역의관계	0.5시간
	정경태	면역계의 구성요소	0.5시간
		항원과 항체의 관계	0.5시간
	박정용	바이러스성 감염의 종류와 HAV, HCV	0.5시간
		B형 간염바이러스	0.5시간
	공주연	자가면역질환의 이해	0.5시간
		자가면역검사법 및 판독법	0.5시간
	임승택	감염혈청의 이해와 혈청학적 검사기법	0.5시간
		HIV와 Syphilis감염의 혈청학적 검사	0.5시간

2020년 상반기 개설 예정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리스트

과정명	강사명	강의명	강의시간
임상검사정보학	권영일	검사실안전관리(1)	0.5
		검사실안전관리(2)	0.5
		검사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방정비 활동	0.5
		예방정비 및 수리의 실제	0.5
		현장검사(POCT)의 이론	0.5
	김대은	현장검사(POCT)의 실제	0.5
		검사실운영(1)	0.5
	김승용	검사실운영(2)	0.5
		검사실 기초 및 중급 통계(1)	0.5
	김정현	검사실 기초 및 중급 통계(2)	0.5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검사 전 분석단계에서의 오류 예방(1)	0.5
	고용상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검사 전 분석단계에서의 오류 예방(2)	0.5
		안전한 채혈 스킬	0.5
	박태화	채혈 감염관리	0.5
	송성수	정도관리 표준화 프로그램(1)	0.5
정도관리 표준화 프로그램(2)		0.5	
이금희	환자경험관리(1)	0.5	
	환자경험관리(2)	0.5	
장상우	검사실 마케팅관리(1)	0.5	
	검사실 마케팅관리(2)	0.5	
임상혈액학	최병호	Beckman coulter 자동혈구분석기 결과분석 1	0.5
		Beckman coulter 자동혈구분석기 결과분석 2	0.5
	이현아	백혈구 세포 형태 1(5diff)	0.5
		비정상 백혈구 세포 형태 2 (Myeloid)	0.5
		비정상 백혈구 세포 형태 3 (Lymphoid 외)	0.5
		적혈구 세포 형태	0.5
		CBC 장비도입 시 평가항목	0.5
	남궁승	참고치 설정 및 검증방법 Calibration	0.5
		유세포분석기 장비관리	0.5
	한상희	Lymphocyte subset 검사	0.5
		혈소판 분석과 분석기기	0.5
	박수배	혈소판 분석간섭 및 대처	0.5
		지혈기전의 개요(1) : 혈소판중심으로	0.5
	심문정	지혈기전의 개요(2) : 응고검사중심으로	0.5
		자동혈액응고 분석기의 이해	0.5
김선경	ISI,INR 정의와 Calibration, NPP 제조	0.5	
	Lot 변경(Control과 Reagent)	0.5	
이현아	분석 오차와 사무적 착오	0.5	
	체액세포검사(상)	0.5	
구본경	체액세포검사(하)	0.5	
	황보라	핵의학개론 & 원자와 방사선	0.5
방사선 안전관리		0.5	
방사능 측정		0.5	
방사면역 측정법 & 원자력 관계법령		0.5	
질관리 및 문서관리 시스템		0.5	
신용환	핵의학 정도관리 개요	0.5	
	ISO15189 인정제도 이해	0.5	
	ISO15189 인정제도 운영	0.5	
	핵의학검사 실무(1) : 검체 채취 및 접수	0.5	
	핵의학검사 실무(2) : 시약의 유효성 평가	0.5	
김진태	핵의학검사 실무(3) : 장비관리 및 결과보고	0.5	
	핵의학검사 실무(4) : 정도관리	0.5	
박준영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0.5	
	방사성의약품의 종류	0.5	
	방사성의약품 합성방법	0.5	
	방사성의약품 정도관리	0.5	
김충환	검체별 처리 및 배지선택과 접종 1	0.5	
	검체별 처리 및 배지선택과 접종 2	0.5	
	임상검체별 집락 판독 기준 1	0.5	
	임상검체별 집락 판독 기준 2	0.5	
	윤인선	임상미생물 염색 1	0.5
임상미생물학	육근돌	임상미생물 염색 2	0.5
		그람 양성 알균의 동정 1	0.5
	최민규	그람 양성 알균의 동정 2	0.5
		그람 음성 막대균의 소개	0.5
	박건규	그람 음성 막대균의 동정 가이드라인 소개	0.5
		무산소성 세균의 분류와 배양	0.5
	함정일	무산소성 세균의 분리과 동정	0.5
		Neisseria, Moraxella 균의 동정	0.5
	권필승	Chromobacterium, Eikenella, Kigella, Acinetobacter균의 동정	0.5
		그람양성 막대균의 동정 1	0.5
	황유연	그람양성 막대균의 동정 2	0.5
		Disk diffusion법에 의한 감수성 검사 술기	0.5
	성지연	CLSI기준에 따른 감수성 보고기준	0.5
		희석법 항균제 감수성검사의 원리	0.5
	주세익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항균제감수성검사	0.5

다른듯 비슷한 일본, 가나자와 임상미생물학회 참가기

글: 김소영(독심자의원)

2010년 첫 교류를 시작으로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의 한일 학술 교류에 2018년 6월-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상성서울병원이라는 한국 1개의 종합병원의 CPE 자료를 가지고 본원에서 진행한 결과와 KCDC 결과의 균종과 균의 유전형형을 비교 정리하여 Detection and molecular characteristics of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e from a tertiary hospital in Korea 라는 제목으로 제31회 일본 임상 미생물 학회 총회 · 학술 집회에서 포스터를 발표하게 되었다.

일본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막상 발표를 앞두고 밀려오는 중앙감에 출발 1주일 전까지도 불안감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걱정도 갑자기 터진 신종 CoV 라는 이슈에 묻혀 걱정 반 기대 반의 출국을 하게 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가장 기대했던 병원투어로 Ishikawa Prefectural Central Hospital (이시카와 현 중앙 병원)을 방문했는데 총 병상 수와 일일 내원객 수는 적었지만 검사실 내부 규모는 생각보다 컸다. 예상했던 대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있는 검사실 곳곳을 보면서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미생물검사실의 염색하는 싱크대도 염색 시약이 하나도 튀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crystal violet을 비롯한 염색 시약이 튀지 않도록 철제통을 배수구에 비치해 놓고 배수를 위한 호스를 연결해 놓았다. 다른 장비들도 배수를 하는 호스를 잘 관리해서 폐수가 나오는 주변도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검사실 근무자들이 가운 위에 비닐 앞치마 (병동에서 사용하는)를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검사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회사 제품의 검사장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일본은 자체 제작한 장비 위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채혈 접수는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는데 소변검사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종이컵이 나오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고 마치 독립된 1인 화장실과 같은 채담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동선을 생각하고 검사 공간을 배치해서 채혈 및 채노, 생리기능, 심전도 등의 검사를 하는 동선이 원을 그리듯이 한바퀴를 돌면 되도록 짜여있었고 이동하는 구간에는 검사실 번호와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 지도를 보면 처음 방문한 환자라도 잘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틀간의 일정 후에 드디어 학회 참가 및 포스터 발표를 했다. 호텔 닛코 가나자와에서 열린 학회는 2-4층에서 심포지움이 동시에 진행되어 듣고 싶은 강의 주제를 선택해서 들으러 갈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총마다 시약과 장비를 소개하는 부스가 테마별로 구성되어 전시되고 있어 최신 검사 트렌드를 비교하여 습득하는데 용이하였고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화장도 지하1, 2층에 상당히 큰 규모의 업체들의 부스들이 회사홍보 및 시약과 장비 홍보를 하고 있었다. 눈여겨볼 점은 국내와는 달리 일본은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어서 항균제감수성시험을 할 수 있는 quick kits 또는 검사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었다. 한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을 검사할 수 있는 키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았다.

이번 포스터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CRE 관련된 분자유전학 방법을 이용한 kit (PCR method) 중에

서 현재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보다 더 간단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검사법이 있어서 검사 원리와 검사방법에 대해 자료를 받아왔다.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곧 들어올 수 있는 자동화 장비들을 실제 보고나니 현 검사실에 맞춰서 공간기획이나 검사자와의 공유 부분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해답을 얻게 된 것 같았다.

드디어 이번 학회의 가장 큰 이벤트인 포스터 발표, CRE와 CPE는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라 한국 의사와 교수들도 관련된 포스터를 많이 제출했다. 내가 소개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었고, 2018년도 이전의 상황과 동일하게 K. pneumoniae가 제일 많이 검출됐지만 E. coli의 검출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가장 많이 나오던 유전자형인 KPC보다 NDM + OXA-181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이 특이했다. 심사위원께서는 Meropenem 검사는 왜 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하셨는데,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할 때 일본은 자체적으로 원하는 것만 골라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Card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만 검사하고 있는 점이 달랐고 이 Card에는 Ertapenem과 Imipenem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의 Carbapenem은 검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드렸다. 우리나라 미생물검사실의 실정은 어디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비단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만의 상황이 아니라 일본과 우리나라 미생물검사실에서의 항균제 감수성 시험의 현황 차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날 귀국길의 정류장에서 일본 회원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공항버스에 올랐다.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무언가 끈끈한 정이 느껴졌다. 올해 11월에 열릴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꼭 오겠다는 말을 언거꾸 하던 일본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이렇게 한일 학술 교류 및 친분이 돈독하게 유지되도록 애쓰시는 임상미생물검사학회 임원들과 좋은 추억 하나를 가슴에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0년도 제1차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

2020년도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학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0년도 제1차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2020년도 제1차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

- 1) 참가자격 : 본회 정회원에 한함(*접수일자 기준)
 - ※본회 종합학술대회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3월 중 사전등록 시스템이 열릴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공지)
- 2) 발표주제 :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 3) 발표일정 : 2020. 10. 9(금) 14:00 ~ 15:20(80분)
- 4) 행사장소 : ICC 제주컨벤션센터 303A, 303B(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나 진행개요

- 1) 접수기간 : 2020년 6월 중순까지
 - *QI(Quality Improvement) 관련 소속기관 내외 기존 수상 건 또는 발표 건도 접수 가능
- 2) 발표시간 : 10분/팀, 총 8팀(총 예상 소요시간: 80분)
- 3) 심사 및 시상개요 :
 - ① 시상 식 : 2020. 10. 9(금) 15:30 ~ 16:00 시상 예정(식순 외 세부사항 추후 공지)

- ② 결과발표 : 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8월 예정)
- *선정된 8팀 모두 종합학술대회 시상 대상이므로, 종합학술대회 등록 및 참석 필수
- ③ 총 예 산 : 총 3,000,000원(총 8팀)
- ④ 시상내역 : 대상: 1,000,000원(1팀)
 - 최우수상 : 500,000원(2팀)
 - 동상 : 200,000원(5팀)
- ⑤ 심사결과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

다 제출서류: kamt@daum.net 이메일 송부

- (이메일 제목 : CQI 발표 신청_성명○○○, 소속기관○○○)
- ① QA 활동보고서 1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② 최종발표자료 (ppt형식으로 제출, *최종 선정된 8팀만 해당)
- ※제출마감기한 : 활동보고서는 6월 중순, 최종 발표자료는 8월 말까지 제출
- (※제출기한 엄수)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0년 3월 25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45호 당첨자]

- 최승혜 회원: 갑작스러운 신종코로나 발생으로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환자확진검사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 노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저희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은아 회원: 1년간 시행될 온라인 보수교육 내용이 나와있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졌어요. 보수교육 내용도 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난이도에 따라 여러단계의 강의를 계획되어 있어서 수강자의 입장에서 무척 만족합니다.

- 하혜련 회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화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많은 의료진들이 동원하여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의료진으로써 존경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임상병리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병리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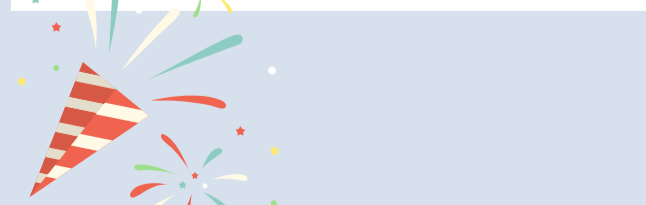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허재석 회원(용인세브란스병원)

논문 「EEG Studies on Physical Discomforts Induced by Virtual Reality Gaming」이 SCI(E)인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ology 저널에 등재

윤현구, 박현주 회원(강북삼성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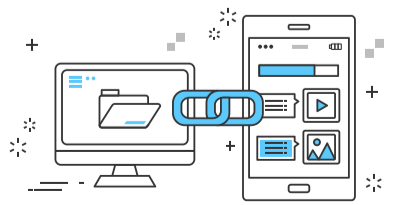
임상병리사 부부 헌혈 (윤현구 회원 60회, 박현주 회원 1회)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창립 30주년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서울본원 | (04805)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42037)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94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edical.com